

제이비케이 파마슈티컬, 화순 백신특구서 출범



제이비케이 파마슈티컬이 3일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공장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봉근 제이비케이랩 회장, 조순태 전 녹십자 부회장 등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사진> 이번 출범식은 지난 8월 제이비케이랩이 한국인스팸을 인수해 제이비케이 파마슈티컬로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행사다. 제이비케이랩은 제이비케이 파마슈티컬을 통해 다양한 의약품들을 생산하고, 해외 유망 일반

의약품들을 약국에 소개할 예정이다. 장봉근 회장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에 이어 의약품까지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제이비케이랩이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의약품 연구개발과 생산의 핵심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00년 태양제약으로 출발한 제이비케이 파마슈티컬은 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인증(GMP)을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 기업이다. /윤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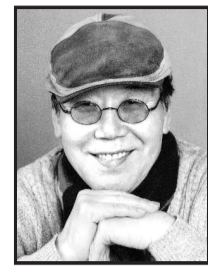
보문복지재단·대성직업전문학교, 보호아동 지원 협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재)보문복지재단(이사장 정영현), (재)대성직업전문학교(이사장 최관수)과 지난 2일 대성직업전문학교 세미나실에서 '보호대상아동 자립역량강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감사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아동이 성공적인 자립을 통해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체험 및 진로개발 활동 등 다양한 자립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각 기관들이 연

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보문복지재단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매년 1억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금까지 총 4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보문복지재단은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총 7억9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별'로 70년대 풍미 가수 홍민 별세



'고별'·'석별' 등의 히트곡으로 1970년대 인기를 끈 가수 홍민이 2일 대장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7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1년 장미라와 듀엣으로 발표한 김동주 작곡 '그리운 사람'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듬해인 1972년 번안곡 '고별'과 박시춘 작곡 '고향초'를 리메이크해 호응을 얻었다. 홍민은 이후 부드러운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앞세워 '석별', '공일 벤치', '망향' 등으로 1970년대를 풍미했다. 그는 한때 이수만, 장현과 함께 '마삼(馬三) 트리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홍민의 인기를 겹쳐서 지켜본 가수 김도향은 "그가 오빠 부대의 원조"라고 말했다. 홍민은 2019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버지가 어릴 적 월북했고,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도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가족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홍민은 올해 7월에도 KBS 1TV '가요무대'에 출연해 기타를 메고 '행복의 나라로'를 불렀다. 이는 홍민의 마지막 무대가 됐다. /연합뉴스

나무심는 건축인, 첨단 생태광장서 식재행사



2023 나무심는 건축인(대표 박홍근) 식재행사가 2일 오후 광주서 광산구 첨단 1동 생태광장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식재 행사에 참여한 50여명의 회원들은 20년생 배롱나무 50그루를 심었다. 1999년 출

범한 '나무심는건축인' 모임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으로 건축사를 포함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최성식 원장, 전남대병원에 발전후원금 1000만원

전남대병원은 지난 1일 최성식 최성식작업의학과원 원장이 전남대학교병원에 발전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최 원장은 지난해 8월 화순전남대병원에 발전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최성식 원장은 "5년 전부터 곡성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양한 곳에 기부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전남대병원이 지역 대표의료기관인 만큼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게나마



기탁했다. 앞으로도 매년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게 지역에서 더욱 열심히 진료활동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사회서비스원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이동 지원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휘)은 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단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목포종합경기장내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제공>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news, drama, and educational cont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6일(음9월23일 戊辰)
36년생 밤심하다가는 예정되었던 궤도를 이탈하리라. 48년생 용도에 부합해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60년생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72년생 모두가 자신과 같지는 않아서 무척 힘들 수 있다. 84년생 점예한 관심사가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96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남의 원성을 사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9, 78
37년생 지나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오만을 야기할 수 있다. 49년생 마음에 담고있던 것 말고 내비쳐야 의미가 있다. 61년생 역할이 가중되어 부담될 수도 있을 것이다. 73년생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슬모가 없을 것이다. 85년생 노력을 충동원해서 집중해야만 이룰 수 있다. 97년생 길잡이 더 많으니 안심하고 보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4, 57
38년생 어지간해서는 이루기가 어려우니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50년생 쓸모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일이 터지기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74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 공극에까지 수월할 것이다. 86년생 바야흐로 길운이 한창 피어나는 때이니라. 98년생 의외로 복잡한 국량이다. 행운의 숫자 : 19, 83
39년생 순식간에 상호 간의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51년생 우연을 가장한 방문자가 보이니 손님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해둬라. 63년생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는 길일에 해당한다. 75년생 막상 임하면 마른 나무 꺾듯 할 것이다. 87년생 제대로 호평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99년생 낮은 자세로 임하라. 행운의 숫자 : 46, 59
40년생 전방위적으로 살펴질 않으면 허점투성이가 된다. 52년생 대단한 일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64년생 이면의 결함을 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 76년생 가부를 분명히 표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88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00년생 진행되는 속도는 더딜지언정 뜻하는 바는 이루어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9, 50
41년생 서두를수록 남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53년생 아는 길도 물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65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77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진행하기에는 이르다. 89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01년생 애မ်발 일이 보이니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55
42년생 자신이 기대했던 바보다 효과가 배가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시간에 좌우되는 문제이니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66년생 신중히 실행해야만 반듯이 생기기 않는다. 78년생 통일된 시각과 집중함이 행세를 굳히리라. 90년생 가다 말고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겠다. 02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68
43년생 자음이 맑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55년생 기교가 첨가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67년생 갑자기 허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겠다. 79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행운이 따른다. 91년생 순조로움을 타고 힘차게 진행되는 도량이니라. 03년생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 행운의 숫자 : 21, 85
44년생 더불어 행하고자 함이 유익하다. 56년생 좀 더 넓은 범위까지 인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 68년생 경험자의 지혜를 빌린다면 진척이 빠르다. 80년생 과잉 신뢰는 진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92년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 궁극적으로 해결되리라. 04년생 몸에 밴 악습 때문에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24, 69
45년생 전무후무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확실한 잡아두는 것이 유익하다. 57년생 빛 좋은 개살구에 현혹되면 곤란해진다. 69년생 중지를 모은다면 모색할 수 있다. 81년생 이혼하면서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93년생 전방위적인 안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05년생 일반적이지만 못하다면 누구에게나 쉽게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6, 90
34년생 적재적소에 쓰여야 효과를 보는 법이다. 46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58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70년생 작은 현상이니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82년생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밀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니라. 94년생 전반적인 구도의 축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득이 된다. 행운의 숫자 : 48, 56
35년생 대비하는 이만이 손실을 최소화하리라. 47년생 낙관적인 정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자. 59년생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71년생 분명함 입장에서 서서 절차대로 이행함이 순리이다. 83년생 자체 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자. 95년생 절호의 기회인 결코 흔하지 않은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1, 93